

崔 灏의 詩世界

李 九 義

<目 次>

- | | |
|-----------|------------|
| 1. 문제 제기 | 2. 현실인식 태도 |
| 3. 표현과 의미 | 4. 졸옹시의 영역 |
| 5. 마무리 | |

1. 문제 제기

14세기 고려 말 國運이 쇠퇴해갈 무렵 문학가의 한 사람으로 등장한 이가 바로 淬翁崔灏이다. 그는 강직한 성격과 확고한 신념으로 일생을 살아갔다, 지금까지의 淬翁의 詩나 文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까지는 네 편의 論文이 있을 뿐이다,¹⁾ 그 가운데서 졸옹의 시에 관한 논문은 단 한 편 뿐이다.

現傳하는 졸옹의 작품은 〈東文選〉에 실려있는 詩 32首와 〈拙藁千百〉의 文 43篇 (東文選所載 32篇 포함)이다. 그리고 그가 編한 것으로는 〈三韓詩龜鑑〉과 〈東人之文四六〉이 있다. 실제의 作品數는 앞의 것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

한 편의 작품 속에는 작가의 생각(Idea), 개성(Personality), 그리고 작가의 표현방법(Description)이 숨어 있다. 여기서 작품의 특징이 드러난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목차의 순서에 따라 졸옹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는가를 먼저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淬翁詩의 영역을 규명하기로 한다.

1) 지금까지의 연구의 업적은, (1) 呂增東, “拙翁과 猥山隱者傳考”(晋州教育大學論文集 第二輯), 1968, (2) 尹炳泰, “崔灏과 그의 「東人之文四六」”(東洋文化研究 第五輯), 慶北大學校東洋文化研究所, 1978, (3) 千惠鳳, “麗刻本東人之文四六에 대하여”(大東文化研究, 第十四輯)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1981, (4) 金宗鎮 “崔灏의 士大夫意識과 詩世界”(民族文化研究, 第十六輯),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2가 있다.

2. 現實 認識 態度

拙翁은 儒學者이다. 졸옹의 시대까지 풍미하던 불교를 그는 信奉하지 않았다. 졸옹은 자신의 동생들이 僧侶였지만, 그는 불교를 완전히 배척했다.²⁾ 특히 그는 유학의 길을 가면서 불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비난했다.³⁾ 당시의 유학자들은 유·불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었다. 즉, 韓半島에 性理學을 전파한 安珦은 승려가 되었다가 환속했다. 그리고 李齊賢의 형 李如도 승려였다.

◦ 외로운 표랑

졸옹은 世界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졸옹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볼 때 과거,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관심거리가 된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졸옹의 모습은 현실에서 궁정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피로워하며 방황하고 있다. 그의 「次韻答鄭載物子厚」⁴⁾를 보기로 한다.

今人賤古人，兒子欺老翁，先儒去邈遠，誰復回淳風，訐人以爲直，專美而擅公，悠
悠百歲下，莫辨烏雌雄，我生生苦晚，好古思繆蒙，向人說肝膽，奚啻楚越同，所以與
時迥，到處哭途窮…… 下略……

위의 시는 五言古詩 32句 가운데의 일부이다. 요즈음 사람들은 옛사람들을 천하게 여긴다. 어린애도 늙은이를 업신여긴다. 옛날의 선비들이 이 세상을 떠난지 오래되었으니, 그 누가 순박한 풍속을 다시 돌리겠는가 했다. 여기서 작중화자는 지난 일에 집착한다. 비록 그 과거가 분명한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중화자에게는 그것이 그가 돌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로 나타난다. 그 다음 句부터는 현재와 미래쪽으로 눈을 돌린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것은 독차지하면서도 오로지 公을 위한다고 한다. 이 句는 현재에 대한 불만이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정신자세에 대한 불만이다. 물론 앞의 句도 현재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이다.

2) 「問舉業諸生策二道」라는 글에서 “惟天生民有秉彝天下之理一而已矣歧而求道寔曰異端”〈拙藁千百〉이라 하고 있다.

3) 「送僧禪智遊金剛山序」라는 글에서 “予見士大夫有遊山者雖力不能止之心竊鄙之”〈上同〉이라 하고 있다.

4) 〈東文選〉, 卷四

위의 句도 과거지향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현재에 대한 불만이 가득차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다시 미래쪽으로 눈을 돌린다. 멀고 먼 백년쯤 뒤에는 까마귀 암수도 분별하지 못할까 염려한다. 여기서 까마귀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하필이면 까마귀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이다. 현대시에 있어서도 具常의 「까마귀」라는 시가 있고, 또 작품 속에 까마귀가 등장하는 시들도 있다. 즉 金顯承⁵⁾의 「가을의 祈禱」에서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에 나타난 까마귀와 辛夕汀⁶⁾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에서 “서리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흡고 /노오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에서의 까마귀이다. 앞의 김현승의 까마귀가 ‘시인의 절대 고독의 경지’를 나타낸 것이라면, 뒤의 신석정의 까마귀는 단지 계절감만을 나타낸 뿐이다. 또 圃隱母⁷⁾가 지었다는 “까마귀 싸는 골에 白鶯야 가지마라/”에서는 까마귀와 백로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까마귀는 惡으로 백로는 善으로 대표된다. 이처럼 까마귀는 고독과 계절, 그리고 惡의 서로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다시 앞의 具常의 「까마귀」라는 시에 나타난 까마귀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李雲龍⁸⁾은 “自身을 까마귀로 인물화하여 현대문명의 물질주의, 기술만능, 고속화 위주의 시대상황에 도전하여 이를 이를 분석·해체하고, 인류의 장래를 예언·경보한다”고 하고 (2) 成贊慶⁹⁾은 “사물의 존재의 참모습을 통찰한 시민의 예언적 목소리”라 하고 (3) 金允植¹⁰⁾은 역사 앞에서, 또는 역사 밖에서 들려오는 예언자의 어조가 ‘까마귀’의 울음소리로 표상된 것’이라 하고 (4) 金光林¹¹⁾은 “까마귀의 의인화와의 문화를 통해 물질만능 풍조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인간의 실어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졸옹의 시에 나타난 까마귀는 어떤 의미일까? 앞에서 언급한 김현승의 ‘절대고독의 경지’나 신석정의 ‘계절감’을 나타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포은의 어머니가 지적한 惡이냐, 아니면 具常의 까마귀에서 눈의

5) 6) 金顯承, 韓國現代詩解說, (서울 : 關東出版社) 1978.

7) 沈載完, 古時謫千首選, (서울 : 螢雪出版社), 1977, p.12.

8) 李雲龍, “新現實主義과 「까마귀」論”(韓國詩文學會編, 詩와詩論)(서울 : 探究堂), 1985, pp. 361~363.

9) 成贊慶, “現存에서 永遠을”(드레퓌스의 벤취에서)(서울 : 고려원) 1984, p. 272.

10) 金允植, “역사너머의 소리, 역사안의 소리”(현대시학), 1978. 8, pp.124~125.

11) 金光林, “情意와 存在와 新現實”(현대시학) 1986. 6, p. 16.

한 것처럼 시대의 상황 분석·해체 및 장래를 예언한 것이나이다. 곁으로 드러난 표현으로는 善에 상응되는 惡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함축된 의미는 구상의 까마귀에서 언급된 ‘먼 장래의 예언’인 것이다. 멀고 먼 백년 뒤라 했으니 시간상으로는 미래인 것이다. 그리고 공간상으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같은 장소라 해도 무방하겠다. 의미는 인간의 가치관이 번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바로 〈詩經〉「小雅」正月篇에 있는 “誰知烏之雌雄”라고 한 것과 같다. 그 만큼 장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못하다. 작중화자의 눈은 과거·현재에 대해서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도 열려있다. 다시 다음句는 내 末世에 난 것이 한스러워 옛것을 좋아해, 요즈음 사람들을 계몽할까 생각한다이다. 여기서는 다시 현재의 시작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와 과거의 인간의 의식 세계를 詳考해 본다. 그 결과 현재의 인간의 정신이 과거 사람들의 마음가짐만 못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가치관이 많이 변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속의 말을 하니, 어찌 상관이 없겠는가? 이 세상과 너무나 맞지 않아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혀 운다고 했다. 가치관이 변했으니 마음이 서로 통할 리가 없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서로 관련이 있지만, 관계가 있는 줄을 모르는 요즈음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작중화자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 마음속의 길—마음과 마음—이 막히니 답답하기만 한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눈물이 난다.

위의 시는 시대를 앞서간 작중화자의 예리한 통찰력을 잘 드러내고 있다, 先覺者여서 남과는 섞일 수가 없다. 보통인간의 마음가짐으로는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경박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 도덕의 타락에 대한 작중화자의 비판이 시대의 상황과 시인의 정신적 절벽과 맞부딪치고 있다.

◦ 예지의 눈

여기서는 다시 졸옹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를 느낀다. (1) “재주¹²⁾가 기이하고 뜻이 높아 당시에 용납되지 못함”이나, (2) “이는¹³⁾ 그의 성

12) “吾兄之才不愧于古而吾兄之志不行于世” 李穀 〈稼亨集〉卷十一, 「大元故將仕郎遼陽路蓋州判官高麗國正順大夫檢校成均大司成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崔君墓誌」

13) “是其性不善於伺候而又好酒數爵而後喜說人善惡凡徒耳入者口不解藏故不爲人所愛重輒舉輒斥而去。” 崔灝, 〈拙藁千百〉中「猊山隱者傳」

품이 웃어른을 잘 보살피지 못한 데다가 술을 좋아하고, 몇 잔을 마신 뒤에는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좋아하고, 귀로 들은 것은 입 속에서 삐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갑자기 추켜세웠다가 곧 배척해버린다”에서 졸옹의 성격이 드러난다. (1)에서 淬翁은 비상한 재주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當代의 巨儒 李齊賢 같은 사람도 “졸옹은 내가 평생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낀다. 당시 졸옹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할 때, 졸옹의 비상한 재주는 (2)에서처럼 경박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졸옹은 나서 죽을 때까지 儒學에 전념했다. 물론 晚年에는 獅子山의 한 절에 가서, 땅을 빌어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隱者¹⁵⁾는 평소에 부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들의 소작인이 되고 말았으니 일찍 세운 뜻이 어긋났음에 스스로 책망하여自戲할 때이다”라고 했다. 그는 儒者가 다른 道로 가는 것을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末世라 했다. 外勢에 의해서 國政이 조종되었다. 심지어는 父子間에 王位 때문에 알력이 생겼다. 졸옹이 보니 主體性¹⁶⁾은 간 끗이 없었다. 그래서 졸옹은 뿌리가 없는 인간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뿌리 없는 인간들은 날카롭게 비판하는 졸옹을 미워했다. 다음과 같은 졸옹의 시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雨荷」¹⁷⁾라는 시에,

貯椒八百斛，千載笑其愚，何如綠玉斗，竟日量明珠

라고 하고 있다. 이 시는 牧隱이 말하기를¹⁸⁾ “탐하여 豪富(饒富)한 사람을 풍자한 것이다”고 했다. 唐나라의 宰相인 元載가 죽음을 당한 뒤에 家產을 물수하니 후추가 팔백 섬이나 되었다 한다. 후추가 팔백섬이나 되었으니 다른 재물은 말할 것도 없다. 元載가 致富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웃음거

14) 李齊賢은 그의 「送金海府使鄭尚書國徑得時字」라는 제목의 시에서 “平生拙翁吾所畏，與世齟齬人共嗤，東人遺文手自錄，又有拙藁皆崛奇，一觀直欲覆盤醢，攘攘可笑群兒癡”라고 있다. 〈益齋亂藁〉卷四, (上點筆者)

15) “隱者素不樂浮屠而卒爲其佃戶蓋訟夙志之爽以自戲耳” 「獮山隱者傳」

16) 淬翁의 主體性은 그의 「東人之文序」에서 잘 드러난다. 즉, “吾東人言語既有華夷之別天資苟非明銳而致力千百其於學也胡得有成乎尚賴一心之妙通乎天地四方無毫末之差至其得意尚何自屈而多讓乎彼哉觀此書者先知其如是而已 〈拙藁千百〉(上點筆者)

17) 〈東文選〉卷十九

18) “牧隱云此譖不廉饒富者”(위의 책 自註)

티가 되었다. 물론 당시 그려 사람들도 元載의 이야기를 하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졸옹 당시의 웅실이나 관리들은 어떠한가? 당나라의 元載보다 나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바로 轉・結句에서 “푸른 육으로 만든 말(斗)로 하루종일 명주(明珠)를 되는 것이 어떠한가?”했다. 맑은 구슬을 하나 둘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斗)로써 그 양을 잰다. 그러니 당시 势家들의 부정은 짐작할 단하다. 구슬은 맑다. 그러나 人間의 心事는 탁하기만 하다. 맑은 구슬과 인간의 흐린 마음을 대비시켜 더욱 의미를 분명히 한다. 나라에 道가 없을 때는 貴하고 富裕하게 되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势家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작중화자가 그러한 점을 말하면 도리어 경박한 사람이라고 욕을 한다. 심지어는 관직까지 좌천시켜 버린다. 그러니 작중화자 자신은 스스로 탄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다.

◦ 非喜劇的 自己確認

앞에서는 졸옹의 예리한 눈이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를 언급했다. 본장에서는 현실에 직면하여 졸옹 자신의 심정을 출회한 것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上元會浩齋得漏字」¹⁹⁾라는 제목의 시를 보기로 한다.

我衣縕袍人輕裘，人居華屋我圭竇，天翁賦與本不齊，我不人嫌人我詬，今夕何夕是元宵，筵秩侯家隨客後，人間萬事何足論，身健且向尊前闌，君乎添酒復回燈，轟飲直到傳曉漏

詩作의 시간적 배경은 정월 대보름이다. 공간적 배경은 浩齋이다. 즉, 고급관리의 집이다. 작중화자가 베옷을 입을 때 남들은 가볍고 따뜻한 가죽옷을 입는다. 또 남들이 화려한 집에서 살 때, 작중화자 자신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 즉, 남들과의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하늘이 정해준 것이 가지런하지 않은 데서 온다. 그래서 작중화자는 남을 싫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들은 작중화자를 비웃는다. 그러니 작중화자는 좀은 안타까워한다. 정월 대보름날의 달은 맑다. 달은 차가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정월 대보름은 뜻깊은 날이다. 한해 가운데서 가장 달이 크게 뜨는 날이다. 또 고급관리는 살림살이가 넉넉하다. 따라서 배경적으로는 풍부하다. 그러나 작중화자 자신을 둘이켜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衣食住도 초라

19) 〈東文選〉卷六

하며, 거기다 남의 비방까지 받는다. 그렇지만 작중화자의 안타까움은 앤타까움으로서만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혼갖 일을 말하여 무엇하리 했다. 그려한 안타까운 일은 물어두자는 것이다. 어찌 보면 죄념인 듯도하다. 이러한 상대에서 해결책이 나온다. 바로 술이다. 술로써 모든 번민을 겉으려 한다. 세속의 일이 작중화자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작중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어긋나고 있다. 그러나 작중화자는 남을 원망하거나, 해치지 않는다. 그저 죄념한 듯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으려 한다. 비록 자기 자신이 비희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다. 현실의 어려움을 죄념한 듯, 달관한 듯 술을 마시고 있다. 졸옹 자신과 외부와의 비타협으로 졸옹은 非喜劇的인 자기자신을 확인한다. 그의 20세까지의 人生歷程을 서술한 「二十一除夜」²⁰⁾라는 시에서 잘 드러난다.

二十一除夜，燈火一書帷，今夕是何夕，又作除夜詩，詩意一何苦，念昔勞我思，十歲心尙孩，喜愠安得知，我年方十一，問字始從師，自一至於五，學海迷津涯，十六充舉子，士版得相隨，十七戰春官，中策欣揚眉，自謂有怙恃，不樂愁何爲。是時少檢束放浪一舍巵，但倚富年華，豈慮名宦遲，世事苦多乖，天地非人私，何圖纔及冠，倏忽閟母慈，茶每入中腸，痛哭何可追，況今老夫子，夏孟承疇咨，仍按東南轡，違顏一歲彌，有弟亦遺遊，空詠鵠鵠辭，孑立默廻顧，欲言聽者誰，所以傷我神，泣涕謾漣涌，秦相方乳臭，斗印纍纍垂，功名不在大，只在遭其時，二十寂無聞，誰稱丈夫兒，我今既云過，一命未曾饑，二十一除夜，空作徂年悲。

위에서 보면, 스무 살까지 졸옹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이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무신란을 계기로 상승해가는 士大夫 집안에서 태어났다. 忠列王 때에만 해도 그 士大夫들에게 좌절감은 주지 않았다. 14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高麗의 背元 감정은 차츰 식어갔다. 그리고 元나라도 고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았다. 그렇지만 졸옹은 20세를 넘기면서 여러 가지 個人的 不幸을 맞게 된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유비, 동생들과의 이별, 자신의 귀양인 것이다. 모두 살 전까지는 세속적인 功名을 좋아했다. 즉, 세상의 시끄러움을 좋아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불행이 종전의 삶에 대한 自省의 계기가 된 것이다. 바로 그 때부터는 자신의 운명이 슨탄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작중화자 자신은 세속의 영리를 초탈한 것이 아

20) 〈東文選〉, 卷四

니다. 秦相의 나이가 지났지만, 秦相처럼 벼슬을 얻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신의 삶이 非喜劇의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윗 시에서는 아직 원숙된 작중화자의 심정을 찾아보기는 힘든다. 아마 출옹은 이러한 어려움을 넘기면서 命에 대해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게 된 것 같다. 그 뒤부터는 세속의 부귀영화에 눈을 둘리지 않고 王子의 道를 위해서 노력한 것 같다. 이 시는 杜甫의 「贈鄭八處士」²¹⁾라는 詩와 비슷하다.

3. 表現과 意味

詩語의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言語의 外廷的 意味만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外廷的 意味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진짜의 實體,²²⁾ 즉 자연계의 어떤 대상을 취하면, 이 실체, 또는 대상이 마음에 喚起하는 모든 觀念을 말 속에 도입하기에는 언어로선 그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言語는 선택되지 않을 수 없다. 선택된 언어 속에서도 概念(Signifié)과 聽覺心象(Signifiant)을 지닌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象徵의 의미, 또는 반어(Irony), 비평(Sarcasm), 역설(Paradox) 등, 등도 言語 속에 들어 있다. 즉, 言外之意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淬翁의 시에서의 詩義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 詞語의 平易

現傳하는 출옹의 시는 34首이다. 그 가운데서도 贈與詩로 치외한 작품은 많지 않다. 여기서 출옹의 시 한 수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의 「風荷」²³⁾를 보기로 한다.

清晨綠露浴，露鏡力不持，天然無限美，抱在未粧時。

먼저 時間과 空間的 배경을 보기로 한다. 시간은 새벽, 또는 이른 아침이

21) 森野繁夫, 中國の詩人, (杜甫), (東京:集英社), 昭和 57年, pp.134~137.

22) "If I take a real entity, an object existing in nature, it will be impossible for language to introduce into the world all the ideas which this entity of object awakens in the mind. Language is therefore compelled to choose. C. K. Ogden & I. 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Cambridge Press, 1946. 5. The 8th edition) p.3.

23) 〈東文選〉, 卷十六

다. 공간은 承句의 ‘거울 앞에’라는 말에서는 방 안인 것 같다. 그러나 거울을 人工的인 것이 아닌 自然的인 거울이라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이 거울은 맑디 맑은 잔잔히 고여있는 물인 것이다. 바로 明鏡止水인 것이다. 즉, 방 안이 아니라 自然 속인 것이다. 여기서 제목을 보면, ‘바람’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바람이 일 때의 물은 고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거센 바람이 아니라 산들 바람이 불 때는 그래도 물 속에는 얼굴이 비친다. 바람이 조금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맑은 거울과 같은 물로 풀이하면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침이면 기분이 맑다. 오후보다는 아침에 기분이 상쾌하다. 모든 것이 희망적이기 때문이다. 아침이라는 말은 발전과 희망을 나타낸다. 깨끗한 아침에 목욕을 겨우 끝냈다. 여기서 ‘겨우(纔)’라는 말에 유의해야 된다. 이 ‘겨우’라는 말은 그 뒷 句의 ‘힘을 가누지 못한다(力不持)’라는 말과 연결된다. 작중화자, 즉 연꽃은 밤샘을 하고 아침에 겨우 목욕을 끝냈다. 그러니 기분이 상쾌하다. 그러나 연꽃의 가는 줄기가 탐스런 뜻 봉오리를 지탱하고 있어 힘이 없는 것 같다. 가는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작중화자 자신도 겨우라고 했으니 그다지 힘이 넘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상(연꽃과 줄기)도 그렇게 보인다. 작중화자 자신과 對象과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삶이란,²⁴⁾ 미래로 향하여 있고, 또 그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삶이란 곧 ‘힘’으로서 나타난다. 작중화자는 설령 힘이 없을지라도 무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 작중화자가 자연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結句에 나온다. 바로 ‘단장하기 전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文’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質’ 자체만 있는 것이다.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는 拙翁이 나이가 들어서 지은 것 같다. 젊었을 때의 작품이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한 번 깊이 둘이킬 수 있는 不惑의 나이를 지나서 지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침의 깨끗함, 그리고 자연, 또는 천연의 숨김없음이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침과 자연의 시간과 공간 위에서 자신을 둘이켜 생각해 본다. 즉 自我省察²⁵⁾을 하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은 시가 아니다. 관조의 세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인 것이다. 같은 제목의 權近의 시²⁶⁾를 보기로 한다.”

24) Otto Friedrich Bollnow 著, 白永均 譯, 삶의 哲學, (서울: 經文社), 1979, p. 49.

25) 呂增東, 韓國文學의 歷史, (서울: 蟻雪出版社), 1983, p. 134.

26) 權 近, 〈陽村先生文集〉卷八「詩類」.

亭亭相倚並，嫋嫋自推移，莫道無持操，掉頭非詭隨

위의 시에서 보면, 앞의 졸옹의 시보다 技巧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起句의 亭亭과 承句의 嫋嫋는 서로 連珠對²⁷⁾를 이루고 있다. 또 相倚自, 倚並과 推移는 雙擬對를 이루고 있다. 轉・結句도 마찬가지이다. 莫道와 掉頭, 無와 非, 持操와 詭隨는 서로 雙擬對 대지는 流水對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기교면에서는 陽村의 詩가 淬翁의 것보다 앞선다. 技巧에 능하다는 말은 純粹하지 못하다는 말과 서로 통한다. 즉, 魏者, 특히 性理學者들이 좋아하는 沖淡, 平淡, 蕭散 등의 말은 기교와는 거리감이 있다. 그렇게 볼 때 陽村의 詩는 淬翁의 시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윗 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亭亭과 嫋嫋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동감이다. 눈으로 보아 가지런하지 못하고, 또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다. 그 뒤의 날말 相倚並과 自推移는 실제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轉句에서 持操라는 말이 나왔다. 움직이지만 지조가 없다는 말은 하지마라 했다.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지만 연꽃은 간사스러운 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꽃은 王子之花²⁸⁾이다. 그만큼 점잖다는 말이다. 즉, 밖으로는 흔들리지만 안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작중화자는 강조하고 있다. 外柔而內僵인 것이다.

이상으로 같은 제목의 淬翁시와 陽村의 시를 견주어보았다. 詩語 사용 技巧에 있어서는 양촌이 앞선다. 즉, 양촌은 졸옹보다 기교가 뛰어났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순수한 면은 陽村이 淬翁보다 뒤진다. 그리고 주제면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한 것 같다. 졸옹은 天然 또는 自然, 즉 純粹性을 강조했고, 양촌은 外柔而內僵을 강조했다.

。「賦」體의 詩

졸옹의 詩는 대부분 〈詩經〉六義 가운데 賦체에 해당된다. 먼저 賦체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周禮〉「春官」에는 “賦之言鋪直鋪陳今之政策善惡”이라 했으며, 劉熙의 〈釋名〉「釋典藝」에서는 “敷布其義謂之賦”라고 있다. 여기서 賦라는 것은 事實 그대로를 鋪陳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孔穎達은 그의 〈毛詩正義〉에서 “賦云鋪陳今之政策善惡其言正變兼美刺也”라 하

27) 羅根澤, 中國文學批評史, 第四篇隋唐文學批評史, (臺灣: 學海出版社), 1980, pp. 1~24.

28) 周茂叔, 「愛蓮說」〈古文真寶〉後集 卷一。

여 賦는 政策의 善惡이나 得失을 거리낌 없이 直陳하는 것으로 ‘正’과 ‘變’ ‘美’와 ‘刺’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宋나라의 程頤²⁹⁾는 “賦者鋪陳其事”라고 하고 朱子³⁰⁾는 “賦者敷陳其事而直言之者也”라 하여 곧 바로 사실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출옹의 「縣齋雪夜」³¹⁾라는 시를 보기로 한다.

三年竄逐病相仍，一室生涯轉似僧，
雪滿四山人不到，海濤聲裏坐挑燈

윗 시는 출옹이 귀양갔을 때에 지은 것이다. 귀양살이를 한지도 삼년이 지났다. 이에 앞서 그는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아버지는 멀리 유배를 당했다. 스무 살까지 평탄하던 출옹의 인생에 역운이 닥치기 시작했다. 삼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고 나니 병이 걸치었다. 병든 몸으로 방에 훌로 있는 것이 修道僧과 같다고 했다. 온 산은 눈으로 덮여있고, 사람은 오지 않는다. 山村에는 눈이 오지 않아도 인적이 드물다. 그런데 눈이 온누리에 가득하니 사람의 그림자는 더욱 찾기 힘든다. 그것도 바닷가여서 파도 소리는 들려온다. 그 파도소리를 들으며 시름에 겨워 둉불을 둑운다. 淬翁이 유배를 간 곳은 全南 茂長縣³²⁾ 長沙라는 곳이었다. 우연히 中國 前漢 때의 文人인 贾誼가 귀양간 곳과 지명이 같은 것을 계기로 지은 시이다. 承句의 直喻(Simile)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句에서는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실정을 서술함에 있어 直說法를 사용하고 있다. 즉 賦體를 빌어온 것이다. 朱子清³³⁾은 “賦詩言志”라고 하고 있다. 모든 시는 작중화자의 입을 통하여 시인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賦」體의 시는 더욱 절실하다. 곧 바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淬翁의 성격과 연관이 있다. 출옹의 강직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 탓인 것이다. 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起句에서, 3년간 유배생활에서 얻은 것은 병이다. 유배라는 것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병까지 성겼다. 자신은 병자이다. 고립된 가운데 불편한 몸은 더욱 고독감을 물고 온다. 그러나 작중화자는 承句에서 그러한 孤獨을 참선하는 스님으로 승화시켜버린다. 남

29) 程頤, 程顥, 〈二程全書〉

30) 朱熹, 〈詩集傳〉「葛覃」篇(首)

31) 〈東文選〉, 卷二十

32) 金宗鎮, “崔灝의 士大夫意識과 詩世界”(民族文化研究 第十六輯),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2, 12. p.204.

33) 朱子清, 古典文學論文集(一), (上海:古籍出版社), 1981, pp.193~354.

을 원망하는 기색은 없다. 좁은 공간에 혼자 앉아 있어도 작중화자는 초연해친다. 起句의 공간적 배경은 承句에 와서는 더욱 좁아진다. 넓은 공간이 좁게 되었지만, 작중화자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는 것 같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니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轉句에서, 눈이 온 산에 가득하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오직 흰색 뿐이다. 거기다가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들며시 등불을 둑운다. 轉句의 눈은 結句의 파도 소리와 더불어 차가움을 나타낸다. 여름에 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겨울, 그것도 온 대지가 흰 눈으로 뒤덮인 겨울에 듣는 파도 소리는 차가움을 더한다. 家庭이 아닌 流配地에서 느끼는 작중화자의 심정을 짐작할 만하다. 공간적 배경을 보면 확장에서 축소, 그리고 다시 확장·축소의 전이를 가져온다. 그러한 전이를 가져오면서 작중화자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등불을 둑운다고 했으니 밤인 것이다. 어둑어둑한 밤에 파도 소리가 들린다. 거기서 작중화자는 한 없는 상념의 세계로 빠져들어 간다. 마치 수도승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또 「追次郭密直預賞蓮詩韻」³⁴⁾이란 시를 보기로 한다.

紅粧翠蓋擁秋池，鷗鷺相依喜得時，想得去年崇教過，薄雲殘照雨絲絲

윗 시의 소재는 연꽃이다. 起句의 紅粧은 바로 연꽃을 말하며, 翠蓋는 연잎을 말한다. 연잎을 작중화자는 푸른 일산이라 했다. 붉은 꽃과 푸른 잎이 대조를 이루면서 가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연꽃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가을 풍경과 화합하여 깊은 여운을 남긴다. 또 轉句의 공중에 날아가는 갈매기와 해오리에서도 친근감이 든다. 갈매기와 해오리가 제 철을 만난 것이다. 여기서 약간 비약하여 과밀적파 졸옹을 갈매기와 해오리로 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이 시는 興體가 된다. 갈매기와 해오리를 보니 지난해 송교를 지나던 일이 생각난다. 承句의 갈매기와 해오리를 그대로 두어도, 轉句에서 두 사람의 和合됨을 알게 한다. 붉은 연꽃과 푸른 연잎이 뜻을 덮은 위로 갈매기와 해오리가 사이좋게 난다. 또 그 위로 얹은 구름이 가랑비를 물고온다. 起句의 紅粧과 結句의 殘照가 相應하고 있다. 석양의 갈매기에서는 소슬함을 느낄 수가 있다. 무뚝히 서서 관망하는 작중화자의 모습이 시 속에 숨어 있다. 시어의 의미 이외에 숨어 있는 깊은 맛이 있다.

34) 〈東文選〉, 卷二十

비록³⁵⁾ 눈앞의 경물을 묘사하지만 의미는 말 밖에 있어 말은 끝이 났지만 맛은 끝이 없다고 하겠다. 자신을 관조하면서 조용히 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졸옹의 시는 賦體를 벌어 자신의 뜻을 드러낸 시가 대부분이다. 위의 것은 興體를 빌기도 했다. 갈매기와 해오리, 연꽃과 석양의 이미지에서 화합과 관조의 세계를 찾아볼 수 있다.

졸옹의 시에는 平易하다. 修飾을 벌로 하지 않고 있다. 賦體를 벌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 시의 분위기는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면서도 소울하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졸옹의 성격과 서로 부합되는 점이다.

4. 拙翁 詩의 領域

前章에서는 拙翁이 사용한 詩語를 통해서 졸옹이 詩 속에서 지향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本章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합해서 졸옹시의 영역을 규명하기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拙翁이 생존했던 시기는 高麗末, 社會的으로 文化的으로 매우 어수선한 때였다. 王位가 뒤바뀌었으며, 그 때까지의 佛教 위주의 문화에서 新儒學으로 전환되는 짓점이기도 했다. 졸옹 자신은 어려서부³⁶⁾ 터 재주가 있었다. 또 文章을 잘했다. 그의 성격은 고상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 적고, 속세와 구차하게 영합하지도 않았다. 그는 異端을 배척하고, 또 남의 잘 잘못을 말하기를 좋아하며, 그 때문에 등용되었다가는 곧 물러나곤 하였다. 이처럼 졸옹의 성격에서 보면, 그는 「博愛之」하는 「好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어질지 못한 것을 싫어하는 「惡不仁」의 성격이다. 졸옹은 스스로 儒者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그는 義를 중시한 나머지 仁의 경지까지는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

◦ 憂患意識

그의 시 가운데에 나타나는 詩精神은 어떠한가? 먼저 「送尹樂正莘傑北上」³⁷⁾을 보기로 한다.

35) “古人之詩目前寫景意在言外言可盡而味不盡” 李齊賢, 〈樸翁碑說〉後集(一)

36) 〈高麗史〉列傳卷二十二, 〈高麗史節要〉卷二十五, 金勇〈群豹一斑〉(乾冊), 李穀〈稼享集〉卷十一「崔君墓誌」, 樂近〈陽村集〉卷三十五「東賢史略」等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37) 〈東文選〉, 卷四

人生一世間，有命懸在天，窮達各其分，惟道貴如絃，奈何枉尋者，悠悠動百千，
先生中有恃，物莫外相牽，願言一終始，名節兩俱全。

위의 시는 樂正 尹莘傑을 전송하면서 지은 것이다.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궁벽하거나 현달하게 되는 것도 다 그 직분인 것이다. 道는 거문고나 가야금의 줄처럼 곧아야 한다. 그러나 곧은 도를 지닌 사람이 드물다. 자기 자신을 굽혀서 부귀와 영화를 찾고자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그러나 윤신결만은 外物에 혼들리지 않는다. 마치 孟子가 말한 “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³⁸⁾”인 것이다. 부귀 빙천, 그리고 위엄이나 무력으로는 그 곧은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곧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윤신결이다.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작중화자(줄옹)인 것이다. 이는 바로 儒家가 生命을 正視하는 道德實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 실천의 강조는 바로 ‘憂患意識’³⁹⁾에서 생기는 것이다. 小人은 바로 현실 생활—부귀, 명예, 등—에 근심을 하지만君子는 財貨나 權勢의 부족에 대한 근심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근심하는 것은 德과 學의 미진한 점 뿐이다. 즉 <周易>에 “易이 생겨남은 中古 시대였던가? 易을⁴⁰⁾ 지은 사람은 憂患이 있어서 였던가?”라는 말에서나, “易이 일어남은 殷나라 末세였던가? 周나라 盛德時였던가? 아니면 文王의 시대였던가, 紂의 시대였던가?”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周易>을 지은 사람은 매우 艱難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艰難한 가운데라야 강렬한 憂患意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줄옹이 우환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줄옹이 살았던 시기는 元나라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또 王位가 뒤바뀌었다. 따라서 治民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상응해서 부정 부패는 증가되기 마련인 것이다.

◦拙한 詩

줄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晦庵⁴¹⁾夫子(朱熹)께서 일찌기 歐陽公

38) <孟子> 卷六, 「膝文公」(下).

39) 牟宗三著, 宋恒龍譯, 中國哲學의 特質, (서울: 汎學社) 1979, pp. 24~25.

40) “易之興也其於中古乎作易者其有憂患乎” 또 “易之興也其當殷之末世周之盛德耶當文王與紂之時也” <周易>「繫辭」下篇.

41) “歐公文字鋒刃利文字好議論亦好嘗有云玉韻自古爲身累肉食何人爲國謀以詩言之是第一等好詩以議論言之是第一等議論” <朱子語類> 卷一三九「論文」上.

의 한 聯句를 칭찬하며 말하기를 ‘시로 말하면 이는 제 일등의 시요, 의론으로 말하면 이는 제 일등의 의론이다’ 하였는데, 나도 이 시에 동감되는 점이 있어서 짐짓 명령에 답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詩는 곧 歐陽修의 「唐崇徽公主手痕和韓內翰」⁴²⁾이라는 제목의 두 句(頸聯) “玉顏自古爲身累, 肉食何人爲國謀”라는 詩句를 두고 한 말이다. 고운 열굴은 옛부터 몸에는 누가 된다. 고기를 먹는 사람 어느 누구나 나라를 위할 생각하겠는가 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귀하거나 부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힘쓰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만 好衣好食하려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朱子가 가식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私보다는 公을 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朱子는 溫柔敦厚⁴³⁾한 詩를 중하게 여겼다. 그리고 蕭散한 맛을 지닌 작품을 좋아했다. 그래서 당시 시인들이 益巧·益密하며 細碎·卑冗하여 여운이 없는 시를 좋아하지 않았다. 歐陽修⁴⁴⁾의 樸素雅淡하고 清新平易한 詩한 시를 朱子가 좋아했다. 그리고 揣翁 또한 그러한 朱子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의 「遷居」⁴⁵⁾라는 시를 보기로 한다.

平生業三誤爲儒, 是處謀身拙且疎, 莫恠遷居無物載, 聖賢經典尙盈車

앞에서 다룬 「送尹樂正莘傑北上」에서는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속명론을 말하고 있다. 바로 人命은 在天이요, 富貴는 天倫인 것이다. 그러면 위의 詩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평생토록 닦은 길은 유학의 길이나 이미 그릇된 선비가 되었다고 했다.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작중화자는 자신을 위하는 것에는 소홀했다고 한다. 졸(拙)은 모자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순진 또는 순수의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소(疎)를 보면, 서툴다는 말로 쓰였다. 여기서 서툴다는 것은 起句의 ‘그릇된 선비라’는 詩句로 보아 학문의 길에서 서툴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42) 歐陽修, 歐陽修全集(上), (臺灣: 河洛圖書出版社), 1975, p.97.

43) 金周漢, “中韓理學家之文學觀及其影響”(臺灣文化大學博士學位論文), 1986. 6. pp.107~143.

郭紹虞, 照隅室古典文學論集, (臺灣: 丹青圖書有限公司), 1985, pp. 251~278.

44) 徐復觀, “宋詩特徵試論”(徐復觀全集 第三冊)(臺灣: 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1985. p.31.

_____, “程朱異同”(위의 전집, 第七冊)(같은곳, 같은 출판사) pp.569~611.

45) 〈東文選〉, 卷二十

생업一재산, 명예, 등一을 가벼이했다는 말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轉・結句의 말과 잘 연결된다. 이사를 하는데 실을 물건이 없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다. 비록 재물이 없어도 마음만은 푸근하다. 물질적인 충족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다. 정신적인 충족에서 오는 흡족함이다. 책이 수레에 가득하기 때문에 만족해 한다. 속물적인 영욕을 뛰어넘은 상태이다. 독서는 정신적 開眼이기 때문이다. 독서를 하면 道와 서로 사귀게 된다. 위에서 拙과 疎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拙은 그대로, 疏는 蕭의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拙翁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기교가 없는 拙로서 蕭散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吳德仁生日>⁴⁶⁾이라는 詩를 보기로 한다.

夫道在率性，不可離斯須，非道久猶夏，命世大賢無，吾邦古朝鮮，英俊時並驅，邇來道亦衰，寥寥歲月邈，天豈似秦政，忍使斯民愚……中略……便便五經笥，汝爲君子儒生日會佳友，筵秩開金壺，座客皆飲酒，肝膽向君輸，皆云享眉壽，終始保金軀，而我本狷直，客後頗相呼，願君奉老矣，事業同三蘇。

道는 바로 본성을 따르는 데에 있다. 즉,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⁴⁷⁾인 것이다. 따라서 道와는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진다면 도가 아닌 것이다. 지금은 道가 아닌 것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또 세상을 지도할 賢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옛날 古朝鮮 때에는 英雄과 俊傑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고조선 이후로는 道가 쇠퇴하였다. 이는 中國人们이 말하는 三代 이후로는 道가 쇠퇴했다는 말과 서로 통한다. 인간성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다. 그 순박한 옛날의 풍습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의 政治는 秦始皇의 政事와 비슷하다. 진시황은 배움이 있는 학자들을 죽이고 책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다. 高麗末에는 焚書坑儒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시황 때만큼 어지럽다. 여기까지는 當代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어진 사람이 없으니 정치가 바로 될 리가 없다. 모두들 私利私欲을 위해 혈안이다. 시대를 앞서간 先覺者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한심스러운 노릇이다. 작중화자와는 가치 추구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 여기서 君子儒와 小人儒가 구별된다. 그래서 작중화자는 군자의 선비가 되라고 했다. 여기서의 대상은 바로 吳德仁이다. 오덕인

46) 〈東文選〉, 卷四

47) 〈中庸〉, 一章

의 생일을 축하한 시이다. 모두들 술을 마시고 축하를 해주고 있다. 座中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오래 오래 살라’는 것이다. 작중화자는 그 밖에 또 한 가지를 바란다. 바로 자신(오덕인)의 아버지를 밭들어 宋나라의 蘇東坡父子들과 같이 文名을 날리라는 것이다.

첫구의 率性과 修道는 전체 詩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바로 率性과 修道를 통하여 天人合一, 天地人三位一體의 경지에 이른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완성된 자이다. 작중화자는 마음 속으로 이러한 天人合一의 사상을 추앙한다. 바로 天人同理⁴⁸⁾, 同道, 同性, 同體, 同德, 同用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이 작중화자가 살고 있는 당시에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현되어야 할 것이 실현되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遷居」와 「吳德仁生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수식이 없다는 것이다. 美辭麗句를 사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爵子之儒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楚翁은 은연중 儒家經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졸옹이 意識的, 無意識的으로 儒學을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증거는 졸옹이 朱子를 부를 때 朱夫子라고 한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上已益齋席上得盛字」⁴⁹⁾라는 시를 보기로 한다,

憶在大德間，吾年方甚盛，亦自喜功名，愛誼不愛靜，奔馳竟無成，進退兩交病，年今過半百，敢謂能知命，晚契託高人，月不負觴詠，禊事講今辰，想像蘭亭令，縱匪非詩仙，且樂中酒聖。

이 시는 삼월 삼 일에 益齋의 자리에서 차운 것이다. 작중화자는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 본다. 한창 젊은 나이 때는 자신도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功名을 좋아했다.⁵⁰⁾ 그리고 그 功名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달렸다. 그러나 얻은 것은 없었다. 孔子께서는 나이 천에 天命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작중화자는 나이 천이 넘었으나 天命을 안다고는 말 못한다 했다. 자신의 겸손한 표현이다. 느즈막이 高明한 사람을 만났다. 만난 사람은 바로 益齋이다. 서로 만나 옛날 王羲之가 「蘭亭序」에서 말한 것처럼 禊事を 한다. 禊事を 하면서 王羲之를 생각한다. 친구를 만났으니 시와 술을 즐긴다. 이 시는 자

48) 申龜鉉, “[中庸]의 天人合一思想”(哲學會誌 第十二輯), 檢南大學校哲學科研究室, 1986. 2, pp. 101~108.

49) 〈東文選〉, 卷四

50) “五十而知天命”〈論語〉卷二「為政」篇.

신을 회고하면서, 친구와는 友誼를 생각하여 지은 것이다.

이상으로 세 수의 시를 고찰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淬翁은 화려한 시—기교를 많이 부린 시—보다는 淬한 시를 많이 지었다. 자신의 정신적 표랑과 시대를 앞서간 예지의 눈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거기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했다. 남에게 용납되지 않는 자신을 알았다. 自我를 발견하자 그는 現實世界를 초월하고자 했다. 여기서 현실 초월이란 말은 도교나 불교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유가의 영역에서이다. 바로 王子儒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淬翁이라는 그의 號도 詩의 淬과 깊은 관계를 지닌다.

淬翁은 儒家의 德目을 중히여겼다. 그리고 그 덕목들을 실천하려고 했다. 그는 특히 性理學을 좋아했다. 그는 朱子의 말을 따르고자 했다. 그래서 朱子가 歐陽修의 詩를 評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는 冲淡, 蕭散, 平淡한 시를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시를 지었다. 물론 초기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만년의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賦」體의 직설법을 사용하여 충담, 소산, 평담한 시를 지었다. 그러한 형식을 취한 것은 졸옹 자신의 성격과 부합된다. 또 졸옹은 儒學者들의 憂患意識을 기반으로 道德實踐을 강조했다.

졸옹이 살았던 시기는 고려시대 말이었다. 성리학이 수입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무르익지 못했다. 졸옹은 性理學을 信奉했다. 그러나 그는 宋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나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들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는 淬翁 자신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當時 學問의 限界性이다. 졸옹은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性理學이 발전한 조선 시대의 학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졸옹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그는 시대를 앞서간 先覺者였다.

5. 마무리

淬翁은 士大夫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총명한 재주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스무 살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스무 살을 전후해서 어머님의 별세, 어버님의 유배, 자신의 귀양 등의 개인적인 불행을 맞았다. 이에 따라 그의 인생관도 변해갔다. 그는 타고난 지혜와 자신의 불행한 경험을 통해 시대를 바라본다. 거기서 그는 긍정적인 면을 찾지 못하고, 정신적인 표랑을 하게 된다. 정신적인 표랑을 거쳐 王子儒가 되려고 하며, 또 다른 군자유가 나타나길 바란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다. 따라서 非喜劇의인 自己自身을 인식한다.

拙翁의 詩語는 平易하다. 그의 시는 수식이 별로 없다. 기교를 많이 부린 시가 아니라 技巧를 적게 부린 詩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의 형식은 「詩經」六義 가운데 「賦」體를 빌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졸옹 자신의 性格과도 관련된다. 강직한 성격이라 수식없이 자신의 뜻을 바로 표현했던 것이다. 淬翁은 외형을 숨기고 내면적, 정신적인 충실을 바랐다. 따라서 그는 自然, 天然의 純粹性을 시를 통하여 강조했다. 또 自身의 號를 淬翁이라 한 것도 이러한 그의 시의 특성과 相關된다.

拙翁의 시 속에는 儒家의 夾惠意識을 담고 있다. 그가 짊어서는 好仁의 경지, 즉 博愛之하는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惡不仁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好仁의 경지를 추구한 사람이다. 그는 완전한 自由人⁵¹⁾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불행을 겪는 동안 자신의 의식 세계를 변모시켰다. 그의 晚年에는 好仁의 경지까지 어느 정도 도달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儒家一性理學者一들이 좋아하는 淬한 詩를 지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朱子를 흡모하였다. 그는 朱子 계통의 학자들이 좋아하는 沖淡, 平淡, 蕭散한 시를 좋아했으며, 자신도 그러한 시를 지었다. 물론 宋나라나 朝鮮 시대의 性理學者들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는 淬翁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당시의 環境的要因이다. 性理學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졸옹은 만년에 獅子山에 온거를 했지만, 끝까지 儒者의 精神을固守했다. 졸옹은 시대를 앞서간 예지의 눈이 있었다. 자신의 불행을 계기로 졸옹은 王子儒의 방향을 모색했다. 졸옹은 고려 말의 뛰어난 文學家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性理學에 심취한 사람이다. 그는 알게 모르게 儒學精神을 보급시키고자 했다. 그의 詩 속에도 그려 한 움직임이 많이 들어 있다. 또한 그는 철저하게 性理學者들—특히 朱子—의 文學觀을 신봉한 사람이다. 여기서 淬翁 詩 世界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

졸옹이 杜甫 詩를 수용한 면도 고찰하고자 했으나 紙面의 制限으로 마음 기회로 미룬다.

〈提要〉

「拙翁」是高麗末期文學家「崔灑」(忠烈王 13. (1287) ~ 忠惠王復位元年(1340))

51) 唐君毅, 人文精神之重建, (臺灣: 學生書局) 1978, pp. 323~419의 「自由之種類與文化價值」參照。

之號。他一生個性剛強正直信念堅定不移，出身士大夫之家自幼聰敏明慧為時人讚許。他在二十歲之前，一直成長在幸福快樂的家庭，但在他二十歲之時接連遭遇了母喪及父親流配之不幸。因此他的人生觀改變得很大他以自己不幸的經驗聰敏的智慧面對當世所以對當代不能全幅地肯定，在精神方面做了多端的尋求，透過此精神方面的尋求，他希望能得「君子之儒」或「大同之儒」的，但是他並沒有發現那樣的人，所以他肯定了自己是非喜劇的人。

「拙翁」的作人平易，毫不加修飾，所以他的詩很少技巧。他的詩之形式是借用「詩經」六義中「賦」的作法來表示自己的思想，這個是他的剛強正直的性格所使然。他對於自己的思想不加以修飾，而且並不重視外型表現，但非常重視內在精神的充實，所以他以詩來強調自然或天然的純粹性。

在「拙翁」的詩中包含着儒家的「憂患意識」。在他年輕的時候他並沒有達到「好仁」的境界，只達「惡不仁」的境界，然一往追求「好仁」的「博愛之」的境地，但是在她遭遇到個人的不幸中，他改變自己的觀念。到了晚年他已到某種程度「好仁」的境界。所以他所做的是儒家即是性理學者所喜歡的「拙」的詩，而且他很羨慕朱子(朱熹)，並喜歡朱子系統的學者所喜歡的「淡泊」，「平淡」，「蕭散」的詩，而且自己做了那樣的作品。當然他並沒有達到宋朝或朝鮮時代之性理學者境界。這個原因並不是「拙翁」自己的能力不足却是當時環境因素所造成的。因為當時性理學的學問體系尚未確立。但是「拙翁」直到晚年隱居在「獅子山」時候，他始終固守著儒者之精神領域。「拙翁」具有前瞻時代的銳智之眼目。所以他自己的不幸，使他追求「君子之儒」。後來成為高麗末朝在性理學方面獲得很大的成就的卓越的文學家。並在不知不覺中，將儒學之精神大大地普及韓半島，成為徹底信奉性理學之文學觀的學者。於此我們可發現「拙翁」詩的特色。